

조선후기 시가 속의 여성 인물 형상(1)*

조해숙**

1. 서론
2. 가사 속 여성 인물의 현실
3. 가사 속 여성 인물의 욕망
4. 마무리 : 여성 인물 형상화 방식의 특징과 그 의미

<국문초록>

문학과 사회사의 관련 양상을 논할 때, 조선후기의 서사지향 가사 작품들은 적절한 논의 대상이다. 본고는 조선후기 가사 속에 새롭고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특히 여성 인물의 형상을 담은 작품들을 분석해 그 양상과 의미를 살폈다. 주된 분석 대상은 <용부가>,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 <덴동어미화전가>, <노처녀가>, <신가전>의 주인공 여성들이다.

작품 속에 형상화된 여성 인물들은 결혼과 관련하여 고난과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거나 이로부터 일탈하는 과정을 거쳐 상벌의 결말에 이른다. 이러한 여성 인물의 현실 모습을 바탕으로 당대 가사 향유층이 추구한 이상과 욕망을 논할 수 있다. 향유층은 부(富)와 노동이라는 현실 요소에 대해 양면적 태도를 보이며, 삶의 태도 면에서 공동체 내에서 안정과 정착 문제를 자주 제기하고 삶의 주체적 책임을 강조한 운명론 내지 분수론을 역설

* 이 논문은 국문학회 2013년 동계학술발표대회(2013.2.18. 숙명여대)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재집필한 것이다. 당시 토론자로서 본 논의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도움을 주신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의 정인숙 교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하였다.

후기가사 작품들에서 여성 인물이 부각되고 유형화하는 현상은 그 자체만으로 주목할 만하다. 인물 중심 가사작품들의 서사적 요소는 소설의 그것과는 다른 기능과 성격을 지닌다. 소설의 독자가 인물의 전형성을 전제하고서 작품을 수용하는 반면, 가사의 독자는 인물의 현실 요소와 현실성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면서 작품을 수용한다. 인물 중심 가사는 전통적 시가양식이 고정된 틀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후기 현실이 요구하는 변화에 대응한 문학적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핵심어: 서사 가사, 여성 인물, 뽕덕어미, 괴똥어미, 덴둥어미, <신가진>, <노처녀가>

1. 서론

문학을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학이 어떤 형태로 제도화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의 의미를 반성하는 일이다.¹⁾ 고전시가 분야에서 문학 작품과 사회의 관련 양상을 문제 삼을 때에는 조선후기, 서사 지향을 보이는 일련의 가사 작품들을 쉽게 떠올릴 만하다. 이 시기에 서사장르가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며 여러 문학 갈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문학사에서 특징적인 현상으로 주목받아 온 바이다. 가사는 서사화 경향을 뚜렷이 드러내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그러한 현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며 그 역사적 함의와 평가를 이끌어 내는 갈래가 되었다.²⁾ 이 같은 사회사적 의미에 전기 가사와 구별되는 작품 자체의 흥미 요소가 더해져, 198·90년대에 는 이른바 ‘서사가사’ 연구가 거듭 학위논문으로 제출되었으며³⁾, 소설 갈래

1) 김현, 『문학사회학』(민음사, 1987), 14면.

2) 김기동, 「가사의 소설화 시론」, 『동국대학교 논문집』 3·4집 합집(동국대, 1968);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민족문학의 논리』(창작과비평사, 1982).

3) 김유경, 「서사가사 연구」(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8); 장정수, 「서사가사 특성 연구」(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이동찬, 「서사가사의 담화양상 연구」(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1); 이혜전, 「조선 후기 가사의 서사성 확대와 그 의미」(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최현재,

와의 교섭 접점을 정밀하게 읽어내고 장르 귀속 문제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 또한 지속되어 왔다.⁴⁾

이들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는 뚜렷하다. 가사의 서사화 현상 자체가 부각되고, 서사가사의 개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본격 서사 장르에 견주어 가사가 이룩한 새로운 진술 방식과 구조 등을 밝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서사성을 주목한 결과 시점과 진술방식, 서사적 구성이나 논리성의 구현 문제 등에 논의가 치우쳐 온 것도 사실이다. 곧 얼마나 소설다운가 하는 것이 서사 지향을 보이는 가사 작품들을 평가하는 준거로 작용해 온 것이다. 이러한 시각 때문에 개별 작품 또는 임의적 작품군을 대상으로 그것을 가사로 볼 것인가 소설로 볼 것인가, 혹은 의사(擬似) 서사인가 본격 서사인가를 반복해 논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가사가 새롭고 다양한 인물을 작품 속에 반영하면서 특히 여성의 목소리와 구체적 형상을 담게 된 사실을 환기하고, 그 인물 형상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인물은 서사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해당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논의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용부가>, <우부가> 속의 인물들은 자기 사회의 모순을 집약해 보여주는 전형화된 인물 유형으로, <노처녀가>의 주인공은 시대적 담론을 발화하는 허구화된 낭만적 화자로, 조선후기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텐동어미화전가>의 주인공조차 하층 몰락민의 한 유형으로 처리되곤 했던 것이다. 인물 중심 가사에서 인물의 면면에 대한 관심은 이들을 둘러싼 사회 현상이나 사건들을 의미화하는 일이나 서사 장르 기준의 구현 정도를 가늠하는 일에 가려져 있었던 셈이다.

일찍이 고전소설 속의 주변적 인물들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정하영 교수는 <심청전> 뽕덕어미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⁵⁾ 이 주목할 만한 논문 에 의하면 뽕덕어미는 개성이 뚜렷한 한

조선후기 서사가사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5).

4) 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 소설사적 관심을 중심으로」(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서영숙, 『한국 여성가사 연구』(국학자료원, 1996); 박혜숙, 「서사가사와 가사계 서사시」, 『고전문학연구』 10집(한국고전문학회, 1995).

5) 정하영, 심청전에 나타난 악인상 : 뽕덕어미론, 『국어국문학』 97(국어국문학회, 1987).

개인이자 하나의 유형을 대표하는 유형적 인물로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추악한 여인, 부도덕한 아내, 유랑하는 서민상이 그것이다.

서인석 교수도 조선후기 역동적인 향촌 사회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인물형’의 출현을 문학적으로 흥미로운 현상이라 진단한 바 있다. 이들 인물 군상들은 이전 소설들이 보여주던 인물의 절대적 선악 구분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선한 인물이라고 나오는 데도 그를 절대적으로 긍정하기 어려운 인물이 있는가 하면, 악인으로 규정하고 나면 뭔가 여백이 남는 그런 악인도 존재한다는 것이다.⁶⁾ 이는 판소리 문학에서 놀부, 월매, 뽕덕어미 같은 보조적 인물형을 ‘교활함, 어리석음, 탐욕, 심술, 너절한 욕망 따위를 제각기의 방식으로 뒤섞어 지닌 채 누추한 삶을 영위하는 자’라 규정하고 선·악 이원론의 도식적 악인형과는 다른, 인간적 체온을 전해주는 유형으로 주목한 논의⁷⁾를 연상시킨다. 또 악인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판소리계 소설에서 주인공의 상대역으로 등장해 작품 구조 및 주인공의 성격 변용에 중대하게 개입하는 희극적 인물인 방자(房子), 정옥(程昱) 등 ‘방자형 인물’을 검토한 논의⁸⁾도 있다.

여성 인물의 형상이 두드러진 후기 가사 작품으로는 『초당문답가』 내 <용부가(庸婦歌)[용부편(慵婦篇)]>,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 계열 가사, <텐동어미화전가(一花煎歌)>, <노처녀가>, <신가전(申哥傳)> 등을 들 수 있다. <용부가>에는 ‘저 부인’과 ‘뽕덕어미’가, <복선화음가>에는 ‘김씨부인(이씨부인)’과 괴퐁어미가, <텐동어미화전가>에는 텐동어미와 이웃 여인들이, <노처녀가>에는 주인공 노처녀가, <신가전>에는 한림택과 그 딸이 등장한다. 이 작품들의 필사·향유는 대체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루어졌으며, <텐동어미화전가>와 <신가전>을 제외한 작품들은 다수의 이본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본 가운데는 ‘…전’이나 ‘…록’을 표방한 작품이 있을 만큼 소설과의 경계가 모호해진 작품도 있으며, 동일 소재를

6) 서인석,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악인 형상: 놀부와 옹고집의 경우, 『인문연구』 20(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9).

7) 김홍규, 판소리 문학의 인물형, 『예술과 비평』 4호, 서울신문사, 1894년 겨울호.

8) 권두환·서종문, 「방자형 인물과 판소리계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의 탐구』(일조각, 1978).

바탕으로 소설로의 전환을 이룬 것도 존재한다. 이 중 <용부가>가 속해 있는 『초당문답가』는 현전 이본들을 살필 때 서울을 중심으로 향유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작품들이 지어지고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대체로 18세기 중반 이후 가속화되어 온 향촌 사회의 분화 과정과, 그 속에서 경제적 성장을 토대로 양반 신분까지 넘보게 된 새로운 계층의 출현이라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기존 연구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에서 든 각 작품들은 길이는 물론 서술자의 존재 유무나 서사화의 정도 면에서 편차가 있으며, 작품의 전개에서 여성 인물이 차지하는 역할 또한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본 논의의 초점이 서사화 수준이나 그 방식을 밝히려는 것이 아닌 여성 인물 자체에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작품들을 구분 없이 함께 다루기로 한다. 2장에서는 작품 속에 중점적으로 형상화된 모습을 중심으로 여성 인물들이 당면했던 현실을 재구해 내고, 3장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대 가사 향유층이 추구한 이상과 욕망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 과정 속에서 가사라는 전통 문학 양식이 자기 시대의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또 인물 중심 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물 형상은 본격 서사문학이라 할 소설 등의 인물 형상화와 비교해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사 속 여성 인물의 현실

조선 후기 작품 속 인물들을 고찰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어 온 여성 인물들은 뽕덕어미와 괴똥어미, 덴동어미이다. 이들은 가사 <용부가>, <복선화음가>, <덴동어미화전가>에 등장한다. 세 인물에 대하여 각 작품론들에서 언급한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판소리 <심청가>의 부정적 인물과 이름 및 성격을 공유하는 뽕덕어미와, 그녀의 인물 원형이 되었다고 여겨지기도 하는 괴똥어미⁹⁾는 그 모습과 행동 면에서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성격

9) 정하영은 <심청전> 뽕덕어미삽화의 원형을 '괴똥어미전'으로 불러지는 계너가사류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정하영(1987), 19면). 반면 서인석은 <복선화음가> 내의 괴똥어

을 지닌 부정적 악인형 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 덴동어미는 고난에 찬 인생유전을 거치는 비극적 인물이면서 동시에 자기긍정으로 삶에 달관한 태도를 갖춘 하층 여성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세 인물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용부가>의 ‘저 부인’, <복선화음가>의 ‘이씨부인’(혹은 ‘김씨부인’)¹⁰⁾, <덴동어미화전가> 내에 등장하는 주변 여인들, <노처녀가>의 주인공, <신가전>의 한림댁 및 딸 등 다른 여성 인물들 또한 주목한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을 제기해 본다. 기왕의 여성 인물에 대한 인식은 그 행동이나 정서로부터 이끌어 낸 것인가. 아니면 작품 뒤에 숨은 서술자의 논평에 기댄 것인가. 또 수많은 이본을 생산한 시가 작품 속의 인물들이 이처럼 부정적/긍정적 인물형으로 단순하게 고정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 때, 전환기를 통과하던 인물들은 무정향적 혼돈 속에 살지 않았는가. 이 문제는 전통 양식으로서의 가사 문학이 그 시대 사회사와 맺는 양상을 인물 형상을 통하여 살핌으로써 풀어갈 수 있을 터이다.

그렇다면 본격 서사 문학 속의 인물형과 비교해 가사 속의 여성 인물들은 어떠할까.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계기로서의 결혼

가사 속 여성 인물들의 사연은 한결 같이 결혼이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괴퐁어미와 뺨덕어미의 부도덕성과 서툰 인간관계는 혼인으로 인해 표면화되었다. 시집오던 날 잔칫상의 음식을 탐하고, 집안의 부모와 남편은

미와 같은 인물의 계보는 <심청전>의 뺨덕어미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그 영향관계를 역으로 보고 있다(서인석(1995), 56면). 이 문제는 뺨덕어미가 등장하는 완판계 <심청전>과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의 소통 환경을 살펴 해결할 일이다. 다만 가사 작품 내에서는 괴퐁어미 유형이 뺨덕어미 유형 작품보다 선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본고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10)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의 이본들은 서술 내용의 비중에 따라 ‘계녀(중심)형’과 ‘전기(중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계녀형’의 대표 작품인 <김씨계녀 스>에는 ‘김씨부인’이, ‘전기형’의 대표 작품인 <복선화음가>에는 ‘이씨부인’이 등장한다.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의 유형 분류는 서영숙,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서술구조와 의미: <김씨계녀 스>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9(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4) 참조.

물론 남녀노비와 불화하는가 하면, 동네 싸움에 끼어들고 말썽기기를 일삼는 거침없는 행동은 혼인한 여성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시집간 지 석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절에 편지하여 시집 흉을 잡아내네.
 계엄할사 시아버님 암상할사 시어머님
 고자질의 시누이와 여우같은 시앗년에
 드세도다 남녀노복 들며나며 흠구덕에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남편이라 믿었더니 십벌지목 되었어라.

.....

들고나니 초롱군에 팔자나 고쳐볼까.
 양반자랑 모도 하며 색주가나 하여볼까.

<용부가>¹¹⁾

‘저 부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시집살이요와 사설시조에서도 보아온 바 있다. 시집살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절에 편지로 호소하고, 드나드는 여승이나 떠돌이를 따라가는 일을 마음에 두기도 한다. 민요와 사설시조 속의 여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부당한 시집살이를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탈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계녀사>에서 김씨부인의 고난도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유족한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재주 많은 그녀는 양반으로서의 지체뿐인 가난한 시집으로 오면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신산한 삶과 맞닥뜨린다. 친절의 구제와 혼수 방매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굶기를 밥먹듯 해야 하는 처지에도 “말 못하는 병어린 체 노염 없는 병신인 듯” 감내한다.

결혼 후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는 이처럼 다르지만 이들에게 결혼은 탄생만큼이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같다. 결혼은 자기 힘으로 묶을 수도 풀 수도 없는 것이었다. 반면 <텐동어미화전가>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경우는 다르다. 경북 순흥 임이방의 딸이었던 텐동어미는 예천 장

11) 정제호 외 편, 『주해 악부』(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이방 아들과 짧은 결혼 생활을 보내고 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개가 과정에서 주체적 선택을 보인다. 상주 이상찰 아들의 후취로 들어간 첫 개가는 양가 부모의 권유가 크게 작용하지만 이후는 혼자 결정한다.

고되게 일하며 부지런히 함께 돈을 모았던 이승발이 괴질로 죽자, 절망감 속에 방황하던 텐동어미는 우연히 울산 황도령을 만난다.

그런 날도 살았는데 설워마오 우지마오.
 마누라도 설다하되 내 설움만 못하오리.
 여보시오 말씀 듣소 우리 사정을 논지컨댄
 삼십 넘은 노총각과 삼십 넘은 혼과부라.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 신세도 가련하니
 가련한 사람 서로 만나 같이 늙으면 어떠하오?

.....

저 총각의 말 들으니 육대독자 내려오다가
 죽을 목숨 살았으니 고진감래 할까보다.
 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이 내 말이
 우리 서로 붙잡히 여겨 허물없이 살아보세. <텐동어미화전가>¹²⁾

황도령이 텐동어미보다 한층 기구했던 삶의 역정을 토로한 후 함께 살기를 청하자, 텐동어미가 자신의 판단 하에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후 네 번째 남편인 옛장사 조서방을 만났을 때도 그 기상이 순후함을 보고 만고풍상을 겪은 동질감을 바탕으로 부부되기를 작정한다.¹³⁾ 혼자 살아갈 경제력과 배경을 갖추지 못했던 텐동어미가 개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대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내세운 점에 주목할 만하다.

12) 자료는 박혜숙, 주해(註解) <텐동어미화전가>,(『국문학연구』24호, 국문학회, 2011)의 것을 가져왔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작품들도 여기서의 제시 방식에 준하여 원텍스트의 표기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 표기로 바꾸어 제시한다.

13) “그 집으로 들어달아 우선 영감을 자세 보니/ 나은 비록 많으나마 기상이 든든 순후하다.// 영감 생애 무엇이오? 내 생애는 옛장사라/ 마누라는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나?// 내 팔자가 무상하여 만고풍상 다 겪었소.” <텐동어미화전가>

(2) 고난의 내용과 극복 방식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결혼을 계기로 삶이 달라지지만 각자가 넘어서야 할 현실적 고난의 종류는 달랐다. 김씨부인에게는 가난을 타개할 경제력의 확보가 급선무였다.

이목구비 갖춰있고 수족도 성성하니,
 제가 힘써 적이하면 그 뉘라서 시비하랴.
 사람되고 곤궁하면 천하기도 막심하다.
 김부자와 이부자는 씨가 본디 부자런가.
 치산범절 힘쓰리라 낸들 아니 유족하랴.
 만고대승 순임금도 단비땅에 그릇급고
 주문왕의 어진 아내 방적으로 일사먹여
 갈랍장에 유전하고 지금까지 유명커든
 하물며 우리 인생 무엇으로 생애할꼬.

<김씨계녀사>¹⁴⁾

접빈객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웃에 쌀을 꾸러 보낸 여종이 모욕적 언사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김씨부인은 적극적인 치산의 태도를 결심하게 된다. 전통적인 사대부 여성의 치산 덕목이었던 근검과 절약, 길쌈과 바느질 이외에 농지를 개간하고 상업적 행위도 마다 않는 달라진 여성상을 ‘복선화음가’ 가사는 제시한다.

<노처녀가>의 여성은 결혼 자체가 이루어야 할 목표이다. 한미한 향촌 사족으로서의 위신을 내세우며 부귀를 갖춘 혼처를 구하다 딸의 혼기를 넘기고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모와 달리 그녀는 자신에게 걸맞은 결혼의 현실적 조건을 깨닫고 있다.

우리 부모 무정하여 내 생각 전혀 없다.
 부귀빈천 생각 말고 인물풍채 마땅커든

14)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8(동서문화원, 1987).

처녀 사십 나이 적소 혼인거동 차려주소.
 김동이도 상처(喪妻)하고 이동이도 기처(棄妻)로다.
 중매할미 전혀 없네 날 찾을 이 뉘시던고.
 검정암소 살져있고 봉사전담 갖췄건만
 사족가문 가리면서 이대도록 늙어간다. <노처녀가(1)>¹⁵⁾

주인공인 화자는 사별이나 이혼의 경험을 지닌 흠 있는 인사와도 결혼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혼인 조건으로 부귀와 가문을 내세우는 자신의 부모를 향해서는, 노처녀 딸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집안 농사와 제사 밀천을 팔아서라도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내보인다. 그러나 그 같은 화자의 호소는 현실에서는 직접 전해지지 않아 혼인이 성사될 만한 기미는 없다. 이처럼 <노처녀가(1)>이 부모세대와의 상반된 현실인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탄으로 마무리되는 반면, <노처녀가(2)>는 결혼도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는 여성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내 서방을 내 가리지 남더러 부탁할까.
 내 어찌 미련하여 이 의사를 못 내던고.
 만일 벌써 깨쳤다면 이 모양이 되었을까.
 청각 먹고 생각하니 아주 쉬운 일로다.
 적은 염치 돌아보면 어느 년에 출가할까. <노처녀가(2)>¹⁶⁾

<노처녀가(2)>는 바로 이 주인공의 각성 대목을 전환점으로 삼아, 한탄과 하소연으로 끝난 <노처녀가(1)>과는 달리 이상적 혼인에 이르는 과정과 후일담까지 덧붙이고 있다. 혼인 불가를 그린 전반부의 고난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데 비해, 후반부의 결혼 성사 과정은 낭만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바¹⁷⁾이지만, 이 같은 여성 인물의 인식 변화는 주목

15) 김성배 외, 『주해 가사문학전집』(집문당, 1961).

16) 김동욱 교수, 『단편소설선』(민중서관, 1976).

17) 이 점에 관해서는 본고 3장에서 가사 속 여성 인물의 욕망과 관련해 재론하기로 한다.

할 만하다.

이들에 비한다면 텐동어미에게 주어진 고난은 한층 심각하고 중첩된 성격을 띤다. 불가항력인 채로 남편과의 사별을 거듭 맞게 되는 데 더하여, 부지런히 일군 재산마저 매번 실패로 인해 몽땅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가혹한 삶의 고난에 그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일가친척은 나올까하고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니
 두 번째는 눈치가 다르고 세 번째는 말을 하네.
 우리 덕에 살던 사람 그 친구를 찾아가니
 그리 여러 번 안 왔건만 안면박대 바로 하네.
 무슨 신세를 많이 져서 그저께 오고 또 오는가.
 우리 서방님 울적하여 이역스름을 못 이겨서
 그 방안에 궁글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네.
 서방님아 서방님아 울지 말고 우리 둘이 가다보세.
 이게 다 없는 탓이로다 어디로 가든지 벌어보세. <텐동어미화전가>

텐동어미와 둘째 남편 이승발이 이포(吏浦) 상환의 독촉에 못 이겨 집과 전답, 세간 일체를 잃고 부모 상사마저 겪은 후 길에 나왔게 된 장면이다. 믿었던 이웃과 친척으로부터 박대를 당하자 울화와 절망으로 통곡하는 남편을 텐동어미는 진심으로 다독이며 재기를 북돋운다. 이처럼 현실적 고난을 내면적 의지로 넘어서곤 하는 텐동어미의 모습은 작품 곳곳에서 포착된다. 주어진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모습은 텐동어미뿐만 아니라 김씨부인과 <노처녀가(2)>의 주인공 등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기도 하다.

(3) 징벌 또는 보상

여성 인물을 형상화한 가사 작품들이 결혼 문제와 관련한 고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은 이미 살핀 바이다. 그런데 이들 작품은 다양한 고난

의 정황이나 강도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행위에 따른 결말까지 제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여성 인물들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 양상은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으로 그려질 때가 많다. 바로 이 결말 부분 때문에 작품들은 서사적 성격이나 교훈적 성격을 드러내게 된다. 다음에서 그 구체적 양상을 확인해 보자.

<용부가>의 뽕덕어미가 반가정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의 대가로 경제적 몰락과 가정 파탄을 맞고 있다면, ‘복선화음가’계열 가사 속의 괴똥어미에게는 훨씬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우환이 연침하니 초상인들 없을 손가.
 냉대하던 노시부야 상사 난들 관계하리.
 제 심사 그러하니 남편인들 지닐 손가.
 아들 죽어 우는 날에 아기딸이 마저 죽네.
 가산이 탕패하니 노복인들 지닐 쏘냐.
 제사음식 장만할 제 정성 없이 차렸으니 양화 어찌 없으리오.
 셋째 딸이 반신불수 모양도 망측하고 보복도 극진하다.
 문전옥답 술한 전답 수파하여 내가 되고
 크고도 좋은 가택 뿌리부터 없어지고
 태산같이 쌓인 곡식 뉘 재물이 되었는고.
 참혹할사 괴똥어미 단독 일신 뿐이로다.
 다 떨어진 현 베치마 이웃집에 얻어 입고
 뒤축 없는 현 짚신을 짝을 채워 얻어 신고
 앞집에 가 밥을 빌고 뒷집에 가 장을 얻어
 초욕기는 겨우 되고 불 못때는 찬 움속에
 현 거적 뒤집어쓰고 밤을 겨우 새웠나니
 새벽서리 찬바람에 이 집 가고 저 집 갈 제
 다리 절뚝 병신되어 해소 소리 요란하다.

<김씨계녀사>

이처럼 괴똥어미는 가족을 잃고 불구인 딸만 지닌 고립자에다 거지 행색

으로 유랑하는 불구자로 묘사된다. 이 대목은 작품 전반부에 제시된 김씨부인의 가난사설만큼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이 같은 뚜렷한 대비적 효과를 통하여 권선징악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괴똥어미의 사설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이른바 ‘전기형’ 이본들에서는 괴똥어미에 대한 징벌의 정도가 약화된다는 점이다. 괴똥어미와 대비되는 이부인의 일생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확대함으로써 몰입하게 하는 대신,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한 괴똥어미를 향유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슬그머니 내버려 두는 것이다.¹⁸⁾

‘부(富)’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는 <신가전>의 인물을 대할 때 특히 문제된다. 과부의 몸으로 문벌과 경제력을 갖춘 한림택이 최고의 사윗감을 고르려다 재물에 혹해 귀한 딸을 고자에게 시집보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서술자의 풍자적인 시선을 느끼게 된다.¹⁹⁾

말 잘하는 매파들이 날마다 모여들 제
만수산의 구름뭉듯 청산서 안개뭉듯
온 가지로 피이면서 사위일 부자자랑
백단으로 선이는 양 눈에 맞고 귀에 든다. <신가전>²⁰⁾

이 작품의 중심을 차지하는 혼수 준비 장면, 신방 치장, 신행의 광경은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물은 그만큼 밀려나 있다. 이 사실 또한 사회 현실을 작품이 유사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사흘 만에 한림택은 병을 얻어 죽고, 딸은 삼년상을 마친 후 중이 되어 고독한 삶을 보내다가 구십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무인이월 초사일에 이내 목숨 끊어지니
채농에 입관하여 더운 불에 찬 재 되니

18) 조해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복선화음가’계열 가사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5호(국문학회, 2007), 169~170면.

19) 서인석(1995), 61면.

20) 박요순, 「가사 <신가전>고」, 『송전어문학』 6집(송전어문학회, 1977).

슬프고 슬프도다 세상자취 아주 없이
인생이 이 같으니 모드신 부인네
사치를 숭상 말고 유순하기 본심이니
열사의 품을 가져 백년경조 하오소서.

<신가전>

<신가전>의 여성 인물은 악하다거나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잘못된 판단과 불행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계하는 3인칭 서술자는 풍자적 시선과 동정적 시선을 번갈아 보내며, 재물보다 마음을 강조하는 말미의 논평으로 주제를 드러낸다. 이 같은 서술자의 양면적 태도는 곧 부에 대한 상반된 가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향촌 사회에 밀착된 생동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위에서 보듯이 경계 대상으로서의 여성, 곧 부정적 여성 인물을 형상화한 가사들에서 가장 주목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끊임없이 근면하고 분발했던 텐동어미와 같은 여성 인물이 현실적으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 네 번의 결혼과 실패, 불구인 아들에다 가난까지, 보상받은 것이라곤 없어 보이는 일생이지만 그녀의 내면을 듣는 다음 대목에서 문득 빛나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맘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여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여사 태평하면 여사로 보고 여사로 듣지.
보고 듣고 여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달아서
텐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애.
이 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보세.

<텐동어미화전가>

인생에서 텐동어미처럼 고난과 좌절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은 드문 법이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누구나 텐동어미만한 달관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그 사연은 노래로 불릴 만한 가치를 지

닌다. 고통의 심연을 치고 올라와 평상심을 회복한 텐동어미에게 모든 사물은 본성대로 다가들 수 있었다. 옛 한 고리 이고 참여한 화전놀이에서 그녀가 누구보다 신명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의 인생 역정으로부터 스스로 얻은 보상, 이러한 깊은 깨달음으로 인해 가능했을 것이다.

그 혜택은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죽음처럼 시들었던 청춘과부를 살려냈다. 텐동어미가 자신의 만사우환을 기꺼이 노래해 준 덕택에 화전 놀음에 참여한 이들의 걱정근심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²¹⁾ 청춘과부는 45행에 이르는 긴 봄노래를 자청해 부르면서, 그 노래의 말미에 화전놀이에 참여한 인물들을 한 사람씩 불러내고 있다.²²⁾ 그 모든 것이 모여 화창한 그들의 봄을 이루고, 마침내 여인들이 저마다 소중한 꽃처럼 피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3. 가사 속 여성 인물의 욕망

앞 장에서 조선 후기 여성 인물을 특징적으로 형상화한 가사 작품 속에 반영된 여성의 현실 모습을 살폈다. 작품 속 여성들은 결혼과 관련하여 고난과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거나 이로부터 일탈하는 과정을 거쳐 상벌의 결말에 이르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 모습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물형인가를 막론하고 후기 작품들에서 여성 인물을 부각하고 유형화하는 현상까지 나타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분명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는 당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작품 속에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혹은 여성 자신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사 내 여성 인물의 모습 속에서 공통적으로 두드러진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당대 가사 향유층이 추구한 이상과 욕망을 읽어낼

21) “텐동어미 ○○○○ ○○○○ ○○○○/ 만사우환 노래하니 우리 마음 더욱 좋아/ 화전놀음 이 좌석에 꽃노래가 좋을시고.”

22) “산하산중 홍자춘 홍정골매 봄 춘자”의 형식에 맞추어 홍정골매, 골내매, 새내매, 도화동매, 행정매, 도지미매, 회여골매, 오양골매, 연동매, 홍다리매, 안동매, 소리실매, 늦점매, 청다리매, 남동매, 영춘매, 질막매, 우수골매, 단양매, 청풍매, 덕고개매, 풍기매까지 차례로 호명되고 있다.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부(富)와 노동이라는 현실 요소, 그리고 공동체 내의 정착 및 분수·운명론이라는 현실 태도의 문제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 여성이 당면하고 있었던 부와 노동의 문제에 관하여 작품 안팎 여성들의 인식은 양면성을 보인다. 집안의 경제적 책임을 인식하면서 전통적인 근검과 절약 덕목을 내세우며 과소비의 처참한 결말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유적한 치부(致富)의 광경을 과장해 제시하기도 하고, 근면을 역설하며 게으름을 경계하는 반면 노동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여유로운 광경을 긍정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와 노동에 대한 양면성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작품 속에서 살피기로 하자.

여성 인물 가사에 반영된 부에 대한 인식은 ‘치산(治産)’의 개념으로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 18세기 경향분기(京鄕分岐)의 결과 향촌 사족층 여성들은 관리할 재물이 없는 적빈(赤貧) 상태에서 생계형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황이 가사 작품에도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뽕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최고 악행은 가신 탕진, 곧 치산의 실패인 반면, 김씨부인(혹은 이씨부인)은 있는 재물을 관리하는 소극적 치산은 물론 없는 재물도 생산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치산을 이루고 가문을 일으켜 세운 인물로 긍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에 관한 당대의 관념은 고정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놀부전>이나 <옹고집전>에서 문제 삼았듯이 이 당시 부의 윤리성과 사회성이 의심되었으며, 부의 독점적 욕구로 인한 반사회적 행위는 자칫 향촌 질서를 깨는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²³⁾ 부에 대한 집착과 과시가 스스로를 패착으로 이끈 <신가전>은 그와 동일한 인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경제력의 확보를 통한 소비, 치부(致富)의 문제를 경계와 욕망의 양면적 태도로 대하고 있다.

세간살이 못한단 말 절통하고 애달을사
제 복 있어 쓰는 것을 뉘라서 시비하리.

23) 서인석(1999), 68~70면.

선전의 각색피륙 기탄없이 사들여서
 돈을 주고 마련하며 쌀을 주고 옷을 지어
 죽죽이 짝을 채워 이 농 저 농 채워 두고
 기명도 많건마는 전곡을 두루 헤쳐
 왜화기와 당사기며 늦동의며 유리병을
 죽죽이 사들이며 삼간고에 쌓아 두고

<김씨계녀사>

괴똥어미가 재산가에 시집온 후 행하는 소비 행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다. 갖가지 옷감을 거리낌 없이 사서 쌀을 팔아 옷을 지어두고, 사치스런 부엌살림을 넘치게 장만하는 광경을 제시하였다. 괴똥어미의 이 같은 물질적 과소비는 비도덕적 태도만큼 작품에서 중요한 실패와 비난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복선화음가’ 계열의 다른 작품에서 긍정적 여성 인물의 치부 광경에 등장하고 있다.

안팎 마구 노쇠나귀 떼를 찾아 우는 소리
 십이중문 줄행낭줄 왕방울을 걸어 두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 추녀마다 풍경 달아
 동남풍이 건듯하면 잠든 나를 깨웠어라.
 보라대단 요이불을 반자까지 도로 싸고
 용목괘상 두리상을 자개함농 겹쳐 놓고
 오동 서랍 백통 연죽 서초 양초 가득하며
 왜화기며 당화기와 동래 반상 안성 유기
 삼각고의 가득하고

<복선화음가>²⁴⁾

적극적 치산의 방법으로 부를 이룬 이씨부인의 구체적 치부 장면은 괴똥어미의 소비행태를 능가한다. 그릇, 의복 등 기본적 살림살이의 소비 내용은 괴똥어미와 유사한 데다가 여기에 집안 치장과 화려한 침구, 기물 등이 더해졌다. <신가전>에서 딸의 혼수 준비와 신방 치장 부분은 장면 확대라

24) 권영철 편, 『규방가사』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할 만큼 비중 있고 특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²⁵⁾ 여기서도 의식주의 모든 영역에서 세세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갖추어 보여준다.²⁶⁾ 각 인물의 행위에 대한 어조의 차이는 감지되지만, 부정적 인물과 긍정적 인물의 소비행위가 이토록 겹쳐지며 오히려 긍정적 인물에게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물질적 보상을 용인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가사의 주된 향유층이었던 당대 여성들의 결핍과 욕망을 동시에 포착해 낼 수 있다.

가사 작품 속에서 치산과 더불어 향촌 부녀자들에게 강조된 덕목은 노동이다. 이들 가사의 주된 담당층이었던 여성들은 소비와 부의 문제에 관해서처럼 여성 인물들의 노동에 대해서도 양면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부정적 인물형인 뽕떡어미의 게으름에 대해 “물레 앞 씨야 앞은 선하품과 기지개라/ 이야기책이 소일이요 음담패설 세월이라”라고 비판적 날을 세우지만, 긍정적 인물의 치부 장면에서는 한가로운 소일 장면을 첨가해 여성 인물에게 부러운 시선을 던진다.

갑자구월 초과일에 국화주를 한잔 먹고

다리치 드러누워 옥단어미 책보이고

담뱃대 가로물고 고요히 들노라니

홀연히 잠이 들어 정신이 혼혼터니

<복선화음가>

이씨부인이 남편의 장원급제 소식을 전해 듣기 바로 전 대목이다. 농촌의 가을 한낮, 노동에서 해방되어 국화주 한 잔과 이야기책을 즐기는 여유로운 여성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는 가정 경제의 주체로서 남성과 대등하게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한편으로 노동을 통한 치산의 부담을 지게 된 당대 향촌 여성들의 현실 속 꿈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노동에서 해방된

25) 박요순(1977), 14~15면.

26) 예를 들어 의복과 기물 묘사 부분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패물이 갖았으니 즈물인들 아니 줄까/ 왜화기며 당화기며 자개함농 반달이며//
삼층들이 들메장과 쓰기 좋은 전목뒤주/ / 전라도 피륙상자 충청도 오합고리/
신랑신부 순금간저 자개박은 통영소반/ 동래주발 실굽다리 열두 접시 갖은 반상//
요강타구 퇴아발이 생옹남빛 청동화로/ / 인도가위 골무바늘 피죽농에 가득하고//
명주무명 당사실은 왜합 속에 가득하고/ 삼간다락 각색농에 금은보배 가득하고” <신가전>

한가롭고 여유 있는 일상은 결국 여성들이 누리고 싶은 제일 소망이었을 터이다.

가사 속 여성 인물의 모습을 통해 부와 노동과 같은 현실적 요건들 이외에 삶에 대한 태도 면에서의 욕망 또한 파악할 수 있다.

가사 작품의 여성 인물들이 내보인 또 다른 현실적 욕망은 공동체내에서의 안정과 정착이었다. 시대에서든 향촌 사회 속에서든 부와 노동을 통해 여성들이 이루려던 꿈을 결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해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음양의 배합법을 낸들 아니 모를 손가.

부모님도 보기 싫고 형님네도 보기 싫고

아우년도 보기 싫다.

날더러 이른 말이 불쌍하다 하는 소리

더구나 듣기 싫고 눈물만 솟아나네.

내 신세 이리하고 내 마음 이리한들

뉘라서 걱정하고 뉘라서 염려하리.

<노처녀가(1)>

<노처녀가>에서 주인공이 스스로 심정을 밝힌 부분이다. 그 가운데서 “날더러 이른 말이 불쌍하다 하는 소리/ 더구나 듣기 싫고 눈물만 솟아나네”라는 직접 언술은 그 고통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케 한다.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보다 자신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주변의 시선이 노처녀에게는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는 고백인 셈이다. 노처녀가 남들처럼 혼인한 여성의 처지를 갈망한 데는, 당시 여성에게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온전한 성인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현실 조건이 크게 작용했을 터이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부를 이루어 안정을 찾게 된 여성들이 이웃을 돌보고 조화를 이루려는 꿈을 제시한 것도 현실에 대한 여성의 태도 면에서 흥미롭게 다가온다.

무정 세월 절로 가니 시집은 지 십년이라
 가산이 누만재라 이만하면 넉넉할까.
 날마다 소를 잡혀 부모를 공경하며
 능라금수 옷을 지어 철철이 갈아 입고
 떠는 사람 옷을 주고 주린 사람 밥을 주며
 궁고빈족 못 사는 이 혼인장사 못 지내면
 돈을 주고 쌀을 주어 아무쪼록 구제하고
 가산의 허다 소용 일용이 만금이라.

<김씨계녀사>

애초에 김씨부인은 이웃에서 쌀을 꾸는 데 실패한 일을 계기로 직접 경제 활동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후 치산에 전념하게 된다. 그렇게 분발하여 축적한 재물로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구제하고 인간의 기본 예를 차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소망을 위와 같이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향산(恒産)이 향심(恒心)의 조건으로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태도를 확인하게 된다.

사실 괴퐁어미와 뽕덕어미, 그리고 덴둥어미의 고난은 가정 혹은 사회 속에 정착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 여성에게는 내적, 외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귀속하거나 안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던 탓이다.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결혼 이후 시집살이와 부녀자로서의 삶에 부적응을 보여 온 괴퐁어미와 뽕덕어미는 자신들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던 것일까.

어와 애달을사 낸들 남만 못할손가.
 마음을 널리 먹고 동네 인심 얻으리라
 떡을 치고 밥을 지어 오는 사람 퍼주어서
 이웃집 짙은 떡과 너도 좋다 나도 좋다.
 쌀을 주고 돈을 바꾸고 돈을 주고 고기 사서
 슬은 밥은 개를 주고 상한 고기 개를 주며
 삼간 다락 팔간 대청 어물전이 되었구나.

사이사이 빛을 얻어 방물홍정 갖춰 하고
 밤이면 밤참이며 낮이면 점심이라.
 서방을 주자하니 걱정소리 괴롭도다.
 바깥사랑 늙은 시부 꿈속에나 생각할까.

<김씨계녀사>

옛장사야 떡장사야 아이핑계 다 부르고
 물레앞에 선하품과 씨아 앞에 기지개라
 이집 저집 이간질과 음담패설 일삼는다
 모함잡고 똥먹이기
 세간은 줄어가고 걱정은 늘어 간다.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 간다.
 축 없는 현 짚신에 어린 자식 들쳐 업고
 혼인장사 집집마다 음식추심 일을 삼고
 아이싸움 어른쌈에 남의 죄에 매 맞히기
 까닭 없이 성을 내고 이뿐 자식 두드리며

<용부가>

시집오던 날로부터 이웃의 사설에 시달리던 괴퐁어미는 시가와 그 주변에 정착하고자 애쓴다. 그녀가 인심을 얻기 위해 택한 방법은 물질적인 선심 공세였다. 계획도 이득도 없는 소비를 남편이나 시부모가 반길 리 없으니 그들에게 음식을 올리고 사랑받는 일 또한 기대할 수 없었다. <용부가>에 반영된 뽕떡어미의 고민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괴퐁어미의 경우 “어와 애달을사 낸들 남편 못할손가”라는 심정의 구체적 진술이 있지만 뽕떡어미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부정적 행위만 나열되고 있어 그 의도와 배경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인물의 행위와 그를 향한 시선은 흡사하므로 그들의 행동과 결말에 대한 평가 또한 동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²⁷⁾ 재산마저 탕진한 후 외양도 감정도 추스르지 못하

27) 이 점과 관련하여 괴퐁어미 유형의 이야기에 익숙한 향유층이 직접적이고 극단적인 인물형으로 편집하여 <용부가>의 뽕떡어미 유형을 생산해 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용부가>가 실려 있는 가사집 『초당문답』의 의도적 편집자를 떠올려보면 당시 가사 소통 환경 속에서 괴퐁어미 유형→뽕떡어미 유형 인물로의 창조 과정은 충분히 가능성을 지닐 만하다. 두 인

게 된 뺨덕어미의 모습은 연민마저 불러일으킨다.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 어디에 이만한 고난이 있을 것인가.

이처럼 가사 속에서 전형적 인물로 형상화된 부정적 여성 인물들의 모습은 특히 조선후기 향촌 사회에서 신흥부유층이 출현한 현실과도 관련된다. 이들은 급속히 획득한 경제력에 비해 이념적, 신분적 기반 및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계층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후기 가사에 반영된 여성 인물의 고난과 고민의 실상으로부터 현실 속에서 얻고자 한 욕망의 실체 또한 선명히 부각된다.

가사와 나란히 소통 향유되었던 <심청전>의 뺨덕어미의 정체가 유랑하는 서민일 수밖에 없었던 점도 이 점에서 관심을 끈다. 즉 그녀는 심봉사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촉한 부정적 떠돌이형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조선후기 현실 조건에서 하층 여성의 몸으로 생계를 잇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소설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판소리 사설에서는 그녀의 추한 외모를 부각함으로써 등장인물의 부정적 형상을 그려낸다.²⁸⁾ 하지만 현실적인 눈으로 냉정히 판단하자면 거기에 묘사된바, 흐트러진 머리, 움푹한 눈, 솔뚜껑 같은 손, 시키면 발톱은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며 떠돌던 하층 여성 인물의 현실적 삶을 증거하는 연민의 요건일 뿐 악인의 조건은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가사 속의 괴뚱어미와 뺨덕어미가 향촌 사회나 시택에 정착하지 못해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 것 또한 능력과 재주가 모자란 탓이다. 그들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악한도 아니요, 의도적으로 규범을 거스르는 악인이라고도 할 수 없다. 소설이 등장인물의 창조를 통해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는 허구의 장르인 데 반해 가사는 현실 인물을 반영하면서 정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가사 속에 반영된 여성 인물의 태도로서 현실을 수용하는 자

물 유형의 선후 관계에 관해서는 본고 2장 주9)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가사 작품의 실제로부터 더 타당한 방향을 확정할 수 있다.

28) “인물을 불자시면…말총같은 머리털이 하늘을 가리키고, 뒷박 이마 햇 눈썹에 움푹 눈, 주먹 코요, 메주 불, 송곳 턱에 씨랫 니 드문드문, 입은 큰 깨 문 열어 논 듯하고, 혀는 짚신짜 같고, 어깨는 키를 거꾸로 세워는 듯, 손길은 소뎡을 얹어 논 듯, 허리는 짚동 같고, 배는 꽤 문 북통만, 엉덩이는 부자 집 대문짝, 속옷을 입었기로 거기는 못 보아도 입을 보면 짐작하고, 수중 다리, 흑각 발톱, 신은 침척 자 가웃이라야 신는구나.” <신재효본 심청가>

세나 세계관에 관해서도 재론할 여지가 있다. <덴동어미화전가>의 주제를 논할 때 흔히 덴동어미가 보여준 달관의 자세와 더불어 그녀의 운명론적 자세를 내세우곤 한다.

내 고생을 남 못 주고 남의 고생 안 하나니
 제 고생을 제가 하지 내 고생을 뉘를 줄고
 역역가지 생각하되 개가해서 잘 되는 이는
 몇에 하나 아니 되네 부디부디 가지 말게.
 개가 가서 고생보다 수절 고생 호강이니
 수절고생 하는 사람 남이라도 귀히 보고
 개가고생 하는 사람 남이라도 그르다네. <덴동어미화전가>

덴동어미가 자신의 인생 역정을 토로하게 된 이유는 열일곱에 상부(喪夫)한 청춘과부의 한탄과 개가 고민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덴동어미는 자신의 긴 사연 말미에 이어 이른바 운명론 혹은 분수론에 해당하는 태도를 드러내며 개가를 만류한다. 그런데 그녀의 사연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일반적인 운명론이나 분수론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중세 사회의 신분제를 옹호하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각자의 분수대로 살라고 주문하는 분수론²⁹⁾이 아니다. 이는 덴동어미의 체험과 경험에서 우리나라 운명론의 선언이며 지금 처지에서 자기 현실에 맞게 최선을 다하라는 일종의 책임론과 궤를 같이하는 성질의 것이다. 삶의 유연성에 의지해 개가를 생각하는 청춘과부를 향해 덴동어미는 무언가를 감추고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놓인 생의 전부를 당당하고 주체적인 태도로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덴동어미는 자기 삶의 굵이마다에서 스스로 길을 선택하였고 그렇게 가게 된 길에서 만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한 여성이다. 그 궤적을 운명론적 관점에 갇힌 패배론자의 것이라거나, 역사 속 민중의식의 한계로 폄하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29) 신재홍, 『고전소설의 착한 주인공들』(태학사, 2012), 208면.

4. 마무리 : 여성 인물 형상화 방식의 특징과 그 의미

지금까지 가사 작품 속에 반영된 여성 인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로부터 당대 여성들의 욕망을 점검해 왔다. 뽕덕어미와 괴똥어미에게서 구체화된 현실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텐동어미나 김씨부인, 한림댁과 노처녀가 꾸었던 꿈은 당대 현실 속에서는 현실화될 수 없었던 슬픈 꿈에 불과하다. 그것은 시대적인 조건을 넘어서는 욕망이었지만 그 다음 다가올 새시대의 여성에게는 시대정신이 되어 마땅한 욕망이기도 했다. 여성 인물을 내세운 가사 작품들의 생산과 소통은 그러한 슬픈 꿈에 관하여 노래로서 치유의 구실을 담당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포기당하지 않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제 조선 후기 서사적 요소를 지닌 가사 문학의 향유층이 여성 인물을 형상화하기 위해 사용한 형식상의 특징을 살피면서, 가사라는 전통적 시가 양식이 시대에 대응하는 양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여성 인물을 형상화한 가사 작품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상의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작품의 서두와 말미에 본문 내용과 구별되는 서술자의 논평 및 소개 부분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서두는 ‘어와 사람들과~’로 시작되며 말미는 당부의 말로 끝나는데, 이는 가사의 교훈적 역할을 표면화하는 역할을 한다. 삼설기본 <노처녀가>처럼 소설적 도입부를 두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부정적 인물 형상이 본문에서 제시되는 작품에서 이 서두-결말 부분은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과 비판적 거리를 두어 경계의 성격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인물 중심의 새로운 작품을 훈계가사의 영역 안에서 제시하기 위한 장치일 뿐 ‘복선화음’의 제목을 내건 작품들의 예가 그러하듯이 교훈을 유일한 주제로 삼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구나 이것이 여성 인물을 형상화한 가사 작품들이 널리 전파되는 이유는 아니다. 텐동어미의 사연이 화전가의 틀을 입고 있는 것도 유사한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인물 중심 가사들에서는 전기 가사에서는 볼 수 없는 회화화 또는

허구화의 방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괴퐁어미와 뽕덕어미의 미숙하고 저열한 행동을, 서술자의 논평은 최소화한 채 행동 중심으로 나열하며 희화화하는 방식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이되, 희화화를 통해 향유자와 인물 사이에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흥미와 자정력을 동시에 유도하는 효과를 거둔다. 이씨부인의 치부나 괴퐁어미의 징치 부분처럼 과장되고 허구화한 것은 1인칭 자기독백이라는 가사의 언술 방식에서는 상당히 떨어진 점이다. 치산의 현실성이라든지 인물의 사소한 악행을 감안할 때 이러한 허구화는 낭만적 결과라 할 수 있고, 이는 곧 이 작품들이 시대에 밀착하여 당대의 세태를 전하는 데 주안점을 둔 텍스트임을 반증하는 셈이다. 즉 여성 인물 형상 가사들은 윤리보다 세태를 부각한 작품들인 것이다.

셋째, 인물들의 등장은 대체로 서사적 맥락이 결핍된 채 행동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뽕덕어미화전가>나 <신가전>은 비교적 서사적 연결을 갖추었지만 이 경우에도 사건이 항상 계기적으로 인과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며, 사건 혹은 장면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처리되고 있지는 않다. 가사에서 서사의 결핍은 곧 가사 속 인물 형상의 목표가 인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경계와 변화를 요청하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 인물 가사들은 이 시기 어느 때보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며, ‘말하기’보다 ‘보여주기’가 필요했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특징을 종합해 본다면 인물 중심 가사는 서사적 요소를 도입하면 서도 소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인물 형상의 과정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확인된다.

古代小說의 人物創造에 있어서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는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美와 醜, 善과 惡, 富와 貧, 貴와 賤, 福과 禍 등은 엄격하게 對立되는 영역이다. 그러면서 긍정적 가치는 긍정적 가치끼리, 부정적 가치는 부정적 가치끼리 한데 결합해 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善·美·富·貴·福’이 하나의 결합체를 이루고, ‘惡·醜·貧·賤·禍’는 다른 하나의 결합체를 이룬다. 심

청전에서 심청이 前者의 例라면 뽕덕어미는 後者の 例이다.³⁰⁾

소설은 허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립적인 가치를 한 방향에서 구현하는 인물을 창조해야 한다. 후기 가사에서는 부분적으로 허구화한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인물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전적으로 긍정적인 인물도 또 그 반대의 경우도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법. 가사 속에서는 외모를 통한 성격 창조를 찾아보기 힘들며, 대립적인 가치들이 어느 한 방향에서 일관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유사한 상황과 사건에 마주친 인물들의 적응과 부적응을 동시에 담아내기도 하며, 노동과 부에 대한 여성 인물의 반응에서 보았듯이 욕망과 경계의 양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것이 현실의 실상인 탓이다.

여성 인물은 그 자체로 악한도 악인의 형상도 아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면 작품마다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고 그 편집자적 논평에 기댄 결과일 따름이다.³¹⁾ 따라서 작품 속 여성 인물의 현실이나 서술자의 어조를 당대의 일반적 목소리로 대치함으로써 그 행동과 반응을 억압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실주의적 독법 또한 위험하다.

기왕의 연구 성과들에서 후기 가사를 장르론의 측면에서 어느 위치에 고정하려는 의도가 강했으며, 서사적 진술방식과 구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점은 조정이 필요하다. 감동과 교훈을 준다는 문학적 효과는 동일하지만 소설과 가사는 그 효과를 성취하는 방식이 다르다. 향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설의 독자는 인물의 전형성을 전제하고 추종하거나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얻는 반면, 가사의 독자는 작품 속 인물들의 현실다움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려 한다.

여성 인물을 형상화한 가사 작품들의 존재는 전통적 시가 양식이 고정화된 틀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를 얼마나 내부적으로 잘 수행했는가를 살피도록 한다. 시가사 전체의 틀에서 보더라도 이 시대에 여성 인물을 부각한 자체가 하나의 문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요한

30) 정하영(1987), 16~17면.

31) 임주탁, 「<용부>에 나타난 인물 형상과 작가 의식」,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월인, 2005), 470면.

문제에 관해서는 여성 인물을 형상화한 한시나 민요 등 다른 시가 갈래의 작품들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조선후기 향촌 사회사의 온전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 후속 작업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서영숙, 『한국 여성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1~413면.

신재홍, 『고전 소설의 착한 주인공들』, 태학사, 2012, 1~248면.

2. 논문

고혜경, 「<덴동어미화전가> 연구」, 『한국언어문학』35, 한국언어문학회, 1995, 177~192면.

권두환·서종문, 「방자형 인물고: 판소리계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일조각, 1978, 3~36면.

길진숙, 「뽕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용부가><복선화음가><심청가>의 일탈형 여성 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85~118면.

김석희, 「복선화음가 이본의 계열상과 그 여성사적 의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299~345면.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치산 관련 여성 형상」, 『고전문학연구』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193~27면.

박요순, 「가사 <신가전>고」, 『승전어문학』6집, 승전어문학회, 1977, 3~20면.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1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123~145면.

박혜숙, 「서사가사와 가사계 서사시」, 『고전문학연구』10집, 한국고전문학회, 1995, 299~319면.

박혜숙, 주해(註解) <덴동어미화전가>, 『국문학연구』24호, 국문학회, 2011, 325~370면.

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소설사적 관심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1~187면.

서인석,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악인 형상: 놀부와 웅고집의 경우」, 『인문연구』20,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9, 47~78면.

성무경,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현황과 텍스트 소통」,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사, 2004.

이동연, 「<용부가> 인물형성의 구비문학적 배경」, 『어문연구』23, 한국어문교육연

- 구회, 1995, 162~180면.
- 이혜진, 「조선 후기 가사의 서사성 확대와 그 의미」,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1~80면.
- 임주탁, 「<용부가>에 나타난 인물 형상과 작가 의식」,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 장정수, 「서사가사 특성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1~103면.
- 정하영, 「심청전에 나타난 악인상: 뽕덕어미론」, 『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1987, 5~29면.
- 정홍모, 「<뎨동어미화전가>의 세계 인식과 조선 후기 몰락 하층민의 한 양상」, 『어문논집』30, 고려대 국어국문학회, 1991, 81~99면.
- 조해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15호, 국문학회, 2007, 153~187면.
-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82.

The Figures of the Female Characters in the Poetry of the Late *Choseon* (1)

CHO, Haesug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aspect of the relation between literature and social history, with focusing on the new and various characters in the narrative-oriented gasa texts of the Late *Choseon*. Main targets to analyze are the female characters in *YongBuGae*(용부가), *BokSeonHwaEumGae*(복선화음가), *DenDongEoMiHwaJeonGae*(덴동어미화전가), *NoCheoNyeoGae*(노처녀가), *SinGaeJeon*(신가전).

The females in the texts experience troubles and crises related with each one's marriage, go through channels to overcome or depart from it, and arrive at the end of reward and punishment. Based on it, I can interpret the ideal and the desire of gasa's enjoying group of those days. The enjoying group showed an ambivalent attitude about the reality elements such as wealthy and labor, raised the problem of stability and settlement in a community, and emphasized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ependent life to follow the fortunes and to know one's place.

The phenomenon itself that female characters stood out in the late gasa is worth noticing. The narrative elements in the texts of the character-oriented gasa have different functions and qualities than what are in the works of novel do. The readers of novel appreciate a work based upon the premise of typicality, but the readers of gasa appreciate a work to understand and empathize the realistic elements and the reality of the character. The character-oriented gasa is a good literary example that a traditional poetry form didn't stay at an immobilized frame but respond to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al society.

Keywords : narrative-oriented gasa, female character, BbaengDeokEoMi(뽕덕어미), GoeDdongEoMi(괴똥어미), DenDongEoMi(덴동어미), *NoCheoNyeoGae*(노처녀가), *SinGaeJeon*(신가전)

접수일자: 2013. 3. 31
심사기간: 2013. 3. 31~2013. 5. 20
게재결정: 2013. 5. 20